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2025년 기독교 박해국 발표...전 세계 폭력·박해 증가



오픈도어선교회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에 북한이 1993년 이후 23번째,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025년 기독교 박해국 목록’(World Watch List)과 박해 동향에 따르면, 북한에서 나타난 박해에는 여러 기독교인 그룹이 체포돼 수용소에 끌려갔으며, 대내외적으로 위협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악랄하게 숙청되거나 처형됐다.

지난 한 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과 권위주의적 박해가 증가했으며, 특히 중앙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박해국 10위권에는 북한(기독교인 추정치 40만 명)에 이어 소말리아(수백 명), 예멘(소수), 리비아(3만 5,500명), 수단(202만 명), 에리트레아(168만 명), 이란(80만 명), 아프가니스탄(수천 명)이 차지했다.

올해 상위 50위권에 새로 진입한 나라 중 키르기스스탄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순위가 상승했으며, 이는 교회에 대한 폭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등록된 교회와 기독교 기관이 강제로 폐쇄되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압력이 늘어났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세계 박해국 목록 상위 50개국에서 3억 1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매우 높거나 극단적인 수준의 박해 상태에 있다. 이를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 박해받는 기독교인은 7명 중 1명이, 아프리카에서는 5명 중 1명, 아시아에서 5명 중 2명이 박해받는 기독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해국 조사를 통해 나타난 흐름으로는 여러 국가에서 반기독교 폭력이 증가했으며, 독재 국가나 내전으로 불안정한 국가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아 생명과 가정, 교회를 파괴하고 신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험한 상위 10곳 중 8곳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있으며,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2024년 세계 박해국 목록 보고 기간보다 신앙을 이유로 한 살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3,450만 명의 난민 중 약 1,620만 명이 기독교인이다.

교회가 쫓겨나가거나 지하로 내몰리는 사례도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다. 중동을 비롯한 세계 기독교인 박해국 목록에 오른 많은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쫓겨났다. 이들의 고립과 교회의 쇠퇴는 여러 나라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다.

10년이 넘는 전쟁과 재난, 위기를 겪은 시리아의 교회는 크게 줄어들었다. 아프가니스탄의 교회는 깊은 지하에 있으며, 눈에 띄는 기독교의 표현이 적기 때문에 탈레반이 단속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알제리의 모든 개신교 교회는 강제 폐쇄되어 폐쇄 대상이 될 수 있는 교회는 없다. 중국에서는 미등록 교회가 당국의 규제 강화로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로마서 8:35-37)

하나님, 지난 한 해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대한 박해와 폭력이 증가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마치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은 처지에 놓인 성도들에게 환난이나 곤고나 어떤 위협에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은혜의 진리로 불드사 승리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주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군사들로 온 열방에 나아가 주님을 대적했던 모든 입이 주를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온 땅에 드리지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캐나다 복음주의협회, 종교 자선단체 등에 지위 박탈 권고안 우려

캐나다 하원이 정부에 종교 자선단체와 낙태반대 단체의 자선단체 지위를 박탈하라는 권고안을 제출한 데 대해 캐나다복음주의협회(EFC)가 이는 종교계와 많은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에 따르면, EFC는 “권고안 429는 정부에 낙태 반대 단체에 자선단체 지위를 부여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권고안 430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자선단체의 목적에서 종교 증진이라는 특권적 지위를 없애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EFC는 “주요 정당으로 구성된 의회위원회가 이러한 변화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당이 이를 지지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고안이 채택된다면 종교 자선단체, 봉사자들, 사회에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캐나다의 등록된 자선단체 중 40%가 종교와 관련된 단체이고, 이들은 신앙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 제안은 캐나다의 자선 부문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린도전서 1:23-24)

하나님, 캐나다 하원이 종교 단체와 낙태반대 단체의 자선단체 지위를 박탈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위정자들의 이기적이고 탐심 어린 마음을 꾸짖어 주시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진리를 대적하는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반역하는 법이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몸 된 교회와 단체들이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들의 믿음을 통해 이 땅의 교회를 견고케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 에콰도르, 조직범죄집단 폭력으로 8만 명 강제 이주...살인을 역대 최고

에콰도르에서 조직범죄집단의 폭력으로 8만 명이 강제 이주를 당하고 있다고 9일 유엔 인권사이트 릴리프웹이 전했다. 현재 에콰도르 조직범죄 단체는 에스메랄다스, 마나비, 엘 오로, 과야스주(州) 전역에 걸쳐 활동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매일 살인 사건이 보고되고, 수많은 사업체들이 갈취로 인해 폐업에 이르고 있다. 아동들은 범죄 조직에 강제 모집될 위험이 높고, 여성들은 성폭력의 위협에 처해 있다. 이러한 폭력과 위협 속에 주민들은 집을 버리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폭력으로 인해 에콰도르에서 8만 명 이상이 내부 강제 이주 상태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으로 인한 에콰도르 살인율은 2018년 10만 명당 6명에서 2023년 10만 명당 47명으로 급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로마서 5:15)

하나님, 조직범죄집단의 살인과 폭력으로 인해 무질서하고 불안정한 에콰도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착취하는 범죄단체들을 주의 진리로 다스려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깨우사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는 것 같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임했음을 에콰도르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집을 버리고 두려움 중에 고통하는 영혼들이 주의 은혜를 깨달아 복음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시속 100km 강풍에 긴장고조...LA산불 현장에서 ‘불 토네이도’ 포착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1일(현지시간) LA 카운티 서부 해변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 현장에서 ‘파이어네이도’가 포착됐다. 불(fire)과 토네이도(tornado)를 합성한 용어인 파이어네이도(firenado)는 대형 산불로 대기와 가스가 위로 치솟으면서 주변 공기를 빨아들여 지상에서 하늘로 솟구치며 마치 소용돌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파이어네이도는 EF-2 등급 토네이도(시간당 풍속 217km)의 풍속을 지는데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카 파이어’로 불리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이 파이어네이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적도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시작된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은 현재까지 도합 153.1km²를 태웠다.

여의도 면적(4.5km²)의 34배 이상 규모이다. 화재로 소실된 건물은 1만 2천여 채, 사망자와 실종자는 50명 가까이 되고 9만 2천여 명이 대피령을 받고 집을 떠났다. 건조한 날씨와 돌풍으로 산불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4일부터 시속 89-113km의 강풍이 예상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미국 기독교 단체인 시티서브와 월드헬프가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와 주변 지역을 황폐화시킨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긴급 구호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교회 및 커뮤니티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시티서브 네트워크의 전무이사 칼 하게스탐은 성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삶이 뒤바뀐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자원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치유하는 데 필요한 연민과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주 포레스트에 본부를 둔 월드헬프도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 이 단체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이재민들에게 임시 대피소, 식량, 위생용품, 아기 돌봄 용품 등 필수 생필품을 제공했다. 노엘 브루어 에이츠 월드헬프 회장은 “사람들은 집과 생계를 잃었고, 월드헬프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현재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와 재건을 위한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출처: 연합뉴스, 복음기도신문 종합).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시편 103:13-15)

하나님, 로스앤젤레스 곳곳에 일어난 산불이 진화되지 못한 상황에 파이어네이도까지 나타나 더욱 긴장과 공포 가운데 있을 미국을 다스려 주십시오. 바람과 비를 다스리시는 주께서 속히 이 거대한 화마를 잠잠케 하시고 실종자들이 구출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소서.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피해를 입은 자들과 함께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때 교회가 연합하여 구원의 복음이 더욱 선명하게 외쳐지게 하옵소서. 한낱 먼지와도 같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주의 자녀로서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태국, 위구르족 43명 중국으로 강제 송환 위기

11년 전 태국에 구금된 위구르족 40여 명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AP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있는 위구르족 남성 43명은 태국 정부가 중국으로 자신들을 추방할 준비 중이라며 공개서한을 통해 강제 추방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으로 송환되면 학대와 죽음의 위기에 있다며 모든 국제기구와 인권을 우려하는 국가에 “비극적인 운명에서 너무 늦기 전에 구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3월 중국에서 튀르키예로 망명 시도 중 경유지인 태국에서 적발된 300여 명 중 일부로 당시 109명은 중국으로 강제 송환, 여성과 어린이 등 173명은 튀르키예로 보내졌다. 나머지 53명은 태국에 구금된 상태로 유엔난민기구(UNHCR)에 망명을 신청했으며 그중 5명은 사망했고, 5명은 탈출 시도 중 붙잡혀 징역형을 받았다. 위구르족은 무슬림 소수민족으로 주로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거주한다. 미국과 서방국들은 중국이 이들을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가두고 박해한다고 비판했으나 중국은 거짓이라고 반발해왔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예레미야 24:6-7)

하나님, 중국이 위구르족에게 행한 소수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피하러 망명을 시도하다 붙잡혀 강제 송환 위기에 처한 40여 명의 위구르족을 붙잡혀 여겨 돌아보옵소서. 태국의 위정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듣는 귀를 허락하사 모든 국제기구와 여러 나라의 호소에 반응하여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을 선택하게 하소서. 십자가 복음 앞에 위구르족을 세우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사 이들이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자신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하여 믿음을 심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 대만,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허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대만에서 이번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허가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대만언론을 인용해 전했다. 대만 위생복지부는 지난해 말 관련 허가 내용인 ‘엘지비티(LGBT+)에 대한 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공고하며 만 12-18세 미성년자가 본인 성별에 대한 적응 곤란을 겪을 시 전문팀 평가 후 성전환 수술을 받도록 했다. 이에 대만 의료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사춘기 청소년의 성별 정체성 확립 시기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현행 법규상 만 18-20세의 경우 미용상 수술을 위해서도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이번 가이드라인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학부모 단체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청소년이 후회할 경우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이사야 1:4,16)

하나님, 동성결혼을 허용했던 대만에서 이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까지 허용해 진리를 반역하며 범죄한 나라가 되어버린 대만 정부를 꾸짖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고 동성애와 성전환으로 주의 성전 삼으신 사람의 영육과 삶 전체를 해하려 하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 나라에 선포하소서. 대만 교회가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악한 행실을 그치고 선을 구하여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라”
기독교 여성, 힌두교도에 폭행 고문으로 의식 잃어...생명 위협



인도 동부에서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 여성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고, 여성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학대·고문했다고 모닝스타뉴스가 전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디샤 주 발라소레 지역 찬칸푸르 마을에서 수바시니 싱(40, Subhasini Singh)이 고빈다 싱(Gobinda Singh)의 집에서 다섯 가족과 성탄절 오찬을 하고 있다.

이때 바달 쿠마르 판다(Badal Kumar Panda)를 포함한 다섯 명의 힌두교도들이 집에 침입해 이들을 심문했다. 이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강제 개종을 주장하며 집을 훼손하고, 고빈다 싱과 그의 아내, 십대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폭도들은 수바시니 싱을 집중적으로 폭행했다. 먼저 그녀의 얼굴에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문지른 후, 가슴, 다리, 얼굴, 무릎,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고 폭행은 그녀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녀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자신의 옷이 벗겨진 상태로 끌려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 공격자들은 고빈다 싱의 여동생인 수칸티 싱(Sukanti Singh)과 그녀의 남편을 신발, 샌들, 주먹과 발로 때렸다. 수바시니 싱은 옷을 입은 후 폭도들이 그녀와 수칸티 싱을 나무에 묶고 그들을 계속 구타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나무 위에 예수님의 그림을 걸어놓았다. 수바시니 싱은 폭행으로 세 번이나 의식을 잃었다.

사건이 커지면서 한 사람이 경찰 긴급 번호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대응은 늦었다. 힌두 극단주의자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은 즉시 세 명의 기독교인을 구금했다. 수바시니 싱은 “제대로 된 의료 검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진통제 한 알도 처방하지 않았으며, 검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수바시니 싱과 수칸티 싱에게 1967년 오디샤 종교 자유법 제4조 및 바라티야 나야 산히타(BNS) 조항인 “종교에 대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모욕” “공동 범죄 책임” “형사 협박”을 포함한 여러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의 동영상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퍼지기 전까지는 가해자 7명(판다 포함)은 체포되지 않았으며, 동영상이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후에야 가해자 7명이 체포됐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10-15명의 추가 가해자들도 추가로 입건됐다.

고빈다 싱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은 사건을 “강제 개종” 사례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인도는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2024년 세계 박해 감시 목록(World Watch List)에서 기독교인이 살기 어려운 나라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했다. 2013년에는 31위였으나, 모디가 집권한 이후 순위가 악화됐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히브리서 11:25-26)

하나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힌두 극단주의자뿐 아니라 경찰과 의사, 언론에까지 박해받는 인도의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그들의 믿음에 인내를 더하여 주십시오. 학대와 고문으로 피해를 입은 수바시니 싱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을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펼치사 회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으로 인해 핍박자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인도의 모든 교회가 담대함을 얻어 복음이 인도 땅에서 더욱 흥왕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합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휴전에 합의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가자지구 의 밤거리는 모처럼 축제 분위기로 뒤덮였다. 전쟁 발발 후 난민 생활을 한 니자르 함마드는 모든 것이 사라진 가자지구의 현실을 언급하면서 “휴전 소식은 기쁘지만, 전쟁 이후에도 이어질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전쟁 피해자인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도 기쁨과 걱정 속에서 휴전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인질 가족 단체는 “압도적인 기쁨과 안도감으로 휴전을 환영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할 순간이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때 살아남은 야니브 헤기는 “평화가 실현되려면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모두에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고 몇 년간은 조용한 가운데 평화와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반면 이스라엘의 인질 가족 중에서도 우익 성향에 가까운 일부 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는 “이번 협상은 다음 학살과 추가 인질 억류의 길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지로다(시편 85:7-8)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휴전이 합의되면서 전쟁으로 인한 가슴 아픈 소식과 피 흘림의 고통이 멈춰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어야 할 여러 문제 앞에 더욱 주님의 긍휼과 다스리심을 구하오니 두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변화가 리더들에게 먼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붙잡힌 인질들이 속히 풀려나게 하시고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삶을 터전을 상실한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보이시라 가난하고 메마른 심령에 복된 소식을 선포하소서. 그리하여 화평의 말씀으로 위로와 구원을 얻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얻게 하옵소서.

▲ 슬로바키아 고교서 18세 흉기 난동에 교사·학생 숨져

슬로바키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18세 학생이 흉기로 교사와 동급생들을 찔러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슬로바키아 북부 소도시 스피스카 스타라 베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A(18)군이 교사 1명과 학생 2명을 흉기로 공격했다. 범행 후 A군은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교사(51)와 학생(18) 1명은 숨졌고, 다른 학생(18) 1명은 중태다. 경찰은 A군의 범행 동기를 비롯해 사건 경위 전반을 수사 중이다. 슬로바키아 교육당국은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페테르 펠레그리니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이날 사건이 “진정한 비극”이라며 사망자 유족을 애도했다. 그는 “세상의 어떤 문제도 무기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스피스카 스타라 베스는 인구 1만7천여 명인 소도시로 폴란드 국경과 가깝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시편 4:4-6)

하나님, 슬로바키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동급생을 흉기로 찔른 사고 소식에 참담한 마음으로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를 찾지 않는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난 문제로 인해 일어난 비극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가해 학생과 유가족들에게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서 떨며 범죄하지 않고 우리에게 선을 보이시는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슬로바키아가 주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으며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